

꿈쩍않는 금리 ... 서민·中企만 속탄다

전방위 유동성 공급 불구하고 시중금리 안 떨어져
'돈가뭄' 가계·기업, 저축銀·사채시장 내 몰려
회사채·CP 금리 오히려 상승 자금 사정 악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방위 유동성 공급에도 시중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은행채와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카드채와 할부금융채 등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작은 것을 합쳐 30여 가지에 달한다. 원화 유동성만 해도 규모가 13조 원에 가깝고 기준금리만 세 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내렸다.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을 통한 유동성 지원, 통화안정증권 종도환매, 총액한도대출 증액, 국고채 매입, 은행의 지급준비에급에 대한 이자지급 등 수단도 다양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3조3천억

원 공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5천억원 출연계획 등 정부가 취한 조치를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꿈쩍도 안하고 있으며 시중의 자금경색은 여전히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각종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91일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10~11월 두달간 0.3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10월 24일 6.18%로 치솟았다가 한은이 0.75%포인트의 과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지난달 하순부터 5.45%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포인트나 내린 것에 비하면 떨어지는 시늉만 낸 셈이다. 기업의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기업의 단기자금줄인 91일 물 CP 금리는 9월 말 6.56%에서 11월 7.26%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7.1% 선으로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4월에 5%대였던 카드채 금리는 11월 들어 9%를 웃돌았다. <서민·중·소 이자부담에 고통 가중> 신용경색의 충격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더욱 크다. 신용도가 낮아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이들은 사실상 버림받으려는 상황이다. 서민들이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올해 1월 연 11.94%였으나 9월 12.29%, 10월엔 13.14%까지 올라갔다. 예금 외에는 별다른 수신기반이 없는 저축은행들은 금융위기 사태 이후 예금이 줄자 대출도 줄이는 형편이다. 최근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면서 그 불똥

이 고스란히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으로 튀고 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28일 400억 원 규모의 카드채를 최고 9.19%(3년 만기)의 금리에 발행했다. 카드채 금리가 9%를 넘는 것은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 10월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카드채 금리의 상승은 고스란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사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결국 사채나 대부업체 등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은행권이 중기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은행들의 전월대비 중기 대출 증가액은 8월 2조6천억원, 9월 2조9천억원, 10월 3조4천억원, 11월 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연봉 4천만원 근로자 내년 소득세 36만원 ↓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4인 가족 기준)은 내년 소득세를 약 36만원 덜 내게 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현행 8%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4천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현행 17%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16%, 2010년에 15%로 매년 1%포인트씩 내려간다. 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도 현행 26%인 세율이 내년엔 25%, 내후년에 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8천800만원 초과 고소득자들의 경우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엔 그대로 유지되고 2010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인하된다. 이같은 소득세율 인하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4인 가구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로세 16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33만원으로 36만원(20.9%) 감소한다.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총 54만원(31.7%)이 줄어든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결정세액으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더 줄어든다. /연합뉴스

'4인 기준 연금여 1,500만원 이하' 세금 전액 환급

특별공제 증빙 필요 없어
매년 연말이 되면 붐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의 기대에 부풀다. 하지만 국제정치원들조차 복잡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제항목과 적용 여부, 한도액은 매년 준비해도 잊어버리는 마한자이다. 7일 국제정치에 따르면 근로자인 가장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 3명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연금여가 1천562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 증빙서류를 갖추려 애쓸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면세점이 되기 때문이다.

대상인 자녀가 두명이면 연 50만원, 두명을 넘으면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된다. <부양가족 댈러면 소득·연금 기준 충족해야> 세법상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연령요건에도 맞아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려면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가장+부양가족 3인, 소득 1천562만원 이하는 면세> 다양한 인적공제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공제가 더해지면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스스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면세점'이 발생한다.



유기농 고무마 구우니가 참 맛있네

7일 광주시 상무지구 학사농장 유기농타운에서 유기농 김장축제가 참가한 시민들이 고무마를 구워먹고 있다. 학사농장은 6~7월 제 9회 김장축제를 갖고 유기농배추로 김장담그기, 고무마 구워먹기, 김장재료 직거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위직리기자 jwi@kwangju.co.kr

농림수산식품부 일자리 3만개 만든다

내년까지 농·수협도 동참
내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협이 3만여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 농식품부는 7일 농식품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농기업체 육성, 농어촌 개발, 산림자원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2009년에 2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산업 부문에서는 식품플러스터 조성(130개), 농식품 시설현대화(472개), 김치와 장류 등 전통 발효식품 현대화(326개), 농식품 수출 10억 달러 늘리기(3천242개) 사업 등을 통해 4천53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능성 식품,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농림기자재 분야 연구개발(R&D)에 예산 7천163억을 투입해 4천16명의 연구 및 산업현장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년에 정부 지원을 통해 전국 시·군 10곳에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회사가 세워지면 회사 운영과 유통 관련 일자리 77개가 필요하고 해농업개발 지원 과정에서도 약 60자리가 생겨난다. 2009년 추진되는 새만금 농업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시설 개선 등 대형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는 약 4천9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사업 규모가 올해 1조7천820억 원에서 내년 2조1천69억 원으로 2천200억 원 확대된 때문이다. 농협은 22개 대형 농산물판매장과 50개 산지 유통센터(APC)를 새로 지어 내년엔 3천249개, 2013년까지 1만8천929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수협도 가공물류센터(2개)와 바다마트(5개)를 신설하고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 내년 283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역외펀드 투자자 490명 판매사 등 상대 손해사

역외펀드 선물한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490명이 국민은행 등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전례 없는 대규모 펀드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외펀드 선물한계약 피해사 소송준비모임'은 7일 11월 말까지 총 490명으로부터 630건의 역외펀드

드와 선물한 계약에 대한 소송 참가신청을 받아, 8일부터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 대표인 성윤기(38)씨는 "1주내 내 변호인단을 선정해 배상범위 등을 결정하고서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준비모임에 따르면 490명의 소송 참가자들의 총 투자금액은 1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3천만원이며, 평균 손실률은 펀드투자 손실 -58%에 선물환으로 인한 추가 손실 -20%를 더해 -78%에 달한다. /연합뉴스

Table with 6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companies and their recruitment details.

국가 자산 2조5천억달러 증발

환율 상승 여파 땅값 하락 등 포함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에 비해 57%가량 상승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도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2조5천억 달러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환율이 하루 최고 17%나 급등락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에만 우리나라의 총 자산은 비수도권 토지자산에 해당하는 1천112조 원이 늘었다 줄었다 한 셈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국가자산은 6천543조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전국의 토지가 절반 가량(50.8%)을 차지하며 각종 건물과 사회간접자본(SOC), 운송설비 등 유형고정자산 비중(40.1%)도 꽤 크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5 17 19 34 38 41	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 수
1 6개 숫자 일치	1,660,512,200	6
2 5개 숫자+보너스 일치	69,188,009	24
3 5개 숫자 일치	1,556,244	1,067
4 4개 숫자 일치	60,502	54,892
5 3개 숫자 일치	5,000	911,785

등 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95174
2	1억	262332
3	1천만	25668
4	1백만	828588
5	50만	25668
6	2천	9033
7	1천	16

Advertisement for 'Chungcheongbuk-do' (충청북도) featuring recruitment notices for various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Provincial Police and other agencies, with photos of applicants.